Global Operation 김 에스더 선교사 기도편지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장 28절)

삶의 무게가 버거워 보이던 1995년 M 부인에게 현지어로 적어서 부엌 싱크대에 붙여주었던 성경구절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웠음으로, 또한 그 당시 M부인은 예배 시간에는 소리 내어 찬양을 부르지 않았는데 대화 중에도 예를 들면서 찬양하는 M부인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경주는 모두 회교도들이 직장에서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묵묵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례히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들……. 이 땅을 떠나면서 후배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주를 영접한 몇몇의 영혼이 세상으로, 회교로 돌아가버린 안타까운 소식을 오래 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역지에 있어서 힘써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난 3월 H형제의 교통사고(자동차가 거의 폐차직전)는 주께로 돌이키라는 신호 같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4:17)는 권면을 해야 겠다는 부담감에 1개월의 A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저는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에게 예수께로 돌이키라는 영적 도전을 했고, 지금까지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M/Z(R: 아들 직장인, IY: 딸 대학 졸업반, N: 딸 대학입학생) 가정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내가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 등…… 결국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인연을 끊고 3년 정도 지냈는데, 시골의 부모님을 방문해서 용서를 구하기로 했고, 모든 가족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얽혀진 인간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예배에도 참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과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있는 주의 양떼들처럼 참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알고, 들으면서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18. 6. 16.

 A국에서 기도편지를 작성하고 보내지 못 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와 ㅅㅈ 학당의 문화행사로 한식진흥원에서 오신 한식선생님이 진행하는 세미나를 도우면서 문화원에서 한식을 배운 수료자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들과 “떡(절편) 만들기” 수업에 참석하면서, 저도 모르는 분야의 한식 재교육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달 24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친구들의 실망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정치에 관한 대화를 삼가지만, 이 세상에 소망 없음과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 받을 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원 여름 행사 참가와 8월 초 한식 경연대회를 앞두고 지금 예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여름이고 방학 중에 고향으로 간 학생들이 많아서 인지 참가자가 적어 기간을 연장하고 20일 마감까지 기다리면서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U 부인이 저의 집 가까이로 이사 온 후 교제가 많아졌습니다. 장기 여행시에는 화분도 맡기고 동네 마켓과 세탁소 등 정보를 교환하며 한식을 함께 만들기도(어제는 편강) 하면서 왕래가 잦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U 부인의 지인이 있는 바다가 있는 도시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성령께서 심령을 예비하시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때를 기도해 주세요.

저의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는 셋째 여동생 가정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동역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에는 제가 속한 단체에 한 가정이 I시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눈에 이상이 있다고 이곳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거주증을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고, 지난 6월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19~21일에 검사와 부분 망막 분리가 있어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I시에서 사역자 한 가정이 이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정은 ㅅㄱ 훈련을 함께 받은 형제가 95년 A국에 미혼으로 섬기려 왔고 이후에 결혼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가정은 98년 비자발적 입국, 국내사역, I국 사역, 그리고 현재의 나라까지 행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역 기간 동안 서로 파송 단체는 바뀌었지만 25년을 교제한 가정이라 여러 가지로 형편을 나누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P 종족의 난민 교회를 섬기는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둘째 아들이 9월에 전학할 학교와 좋은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응하기를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거주비자를 순적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곤고한 영혼들에게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타작 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기를 소망하며 나누었습니다.

 2018. 7. 12. 김에스더 드림